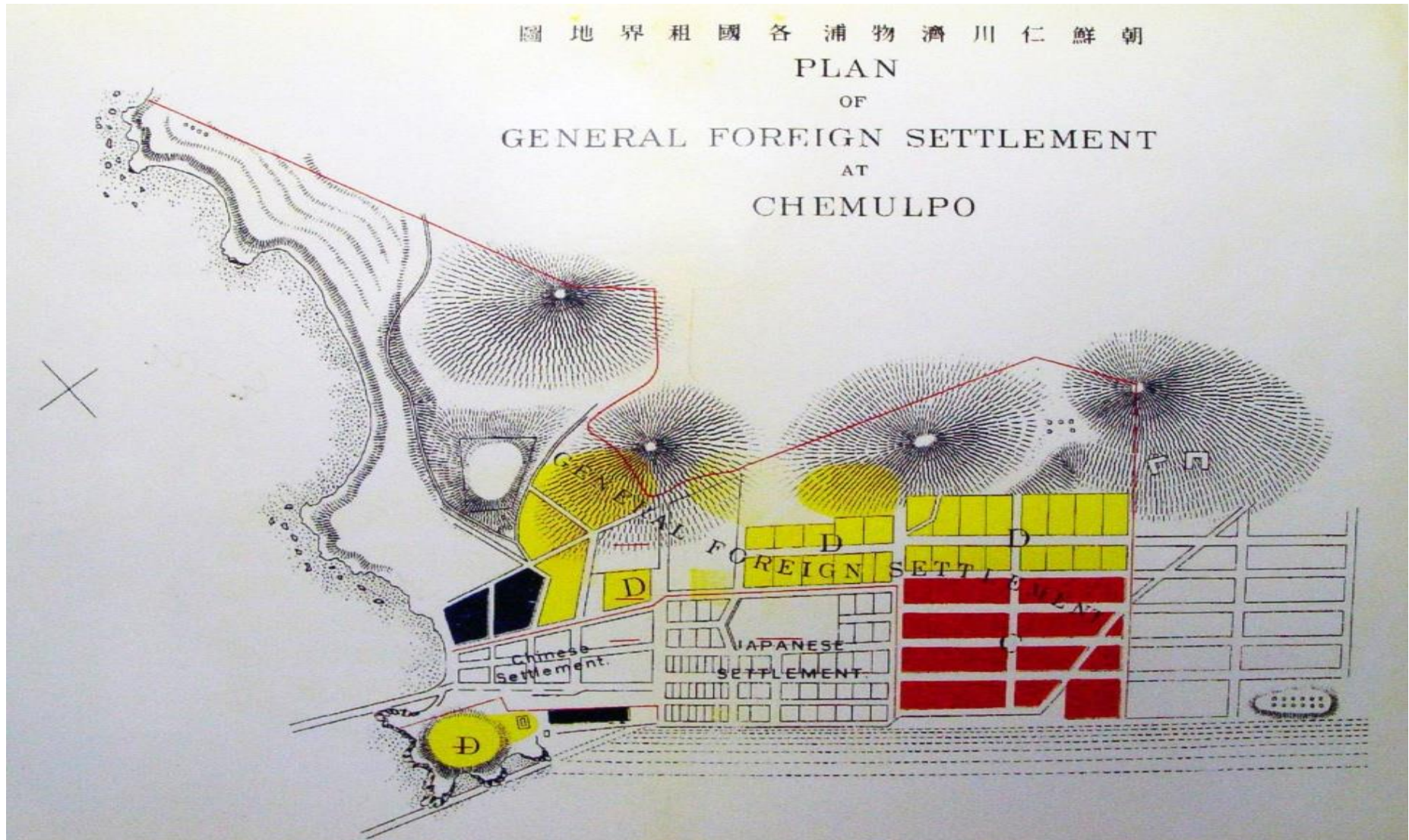


# 인천 청국조계의 역사와 화교사회

인천대 중국학술원 이정희



# 근대 인천에 설치된 조계



# 인천 각 조계의 상황

- 일본전관조계: 1883.9.30 설정, 인천구일본조계약안,  $32,595\text{m}^2$ (약9,877평)
- 청국전관조계: 1884.4.2 설정, 인천구화상지계장정,  $6,763\text{m}^2$ (약2,049평)
- 각국공동조계: 1884.10.3 설정, 인천제물포각국조계장정,  $462,812\text{m}^2$ (약14만246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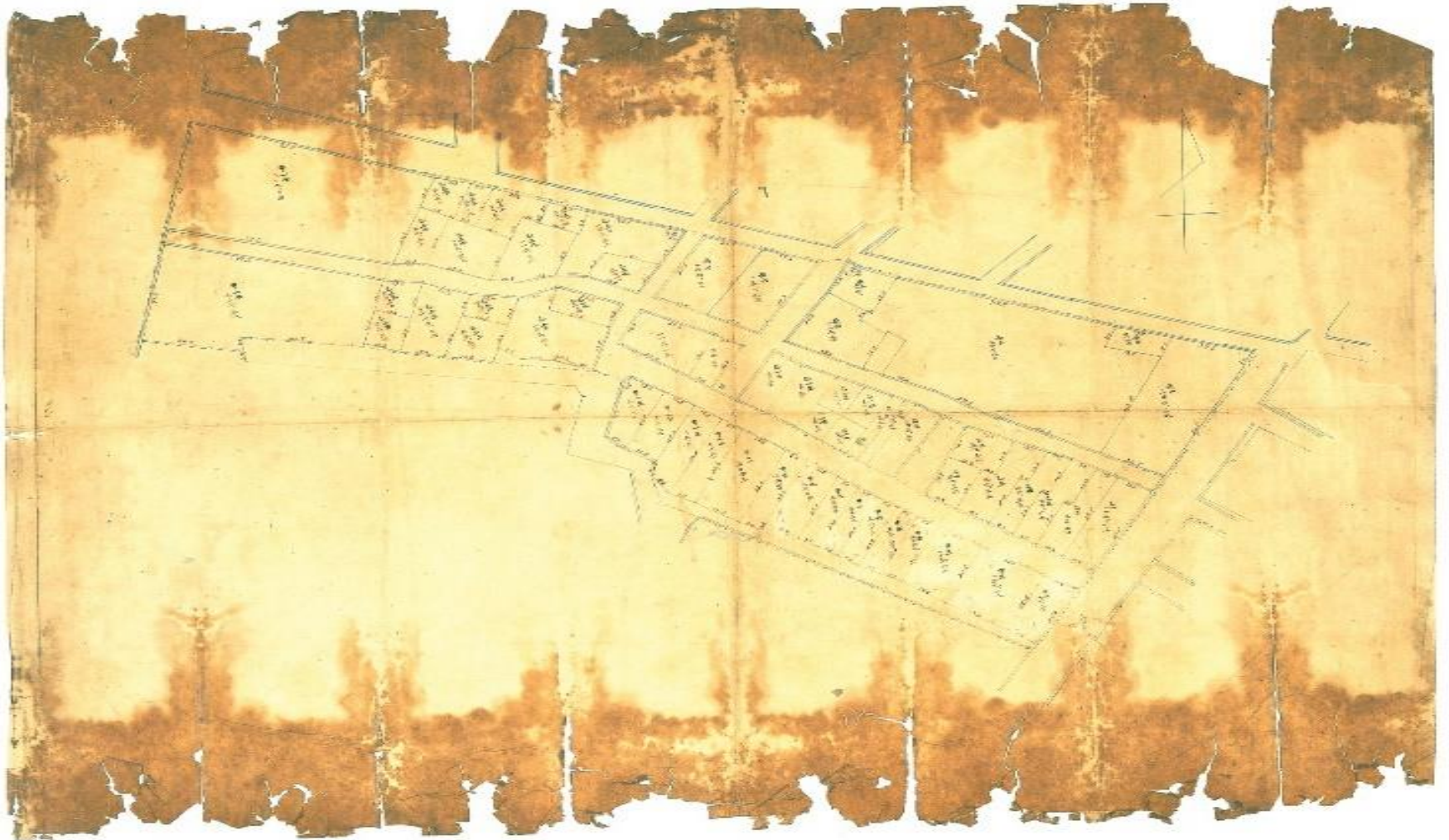
# 인천차이나타운의 역사

- 인천구화상지계장정 체결 (1884)
- 인천, 부산 및 원산의 청국 조계 장정(1910)
- 조선의 중화민국 거류지 폐지 협정(1913)
- 인천, 원산, 부산의 청국 조계는 각 부의 행정구역으로 편입(1914)
- 1914.3 편입 시 인천 청국 조계는 지나정으로 행정 명칭이 변경됨
- 1937년 중일전쟁 전후에 지나정은 미생정으로 명칭이 바뀜
- 해방 후 미생정은 선린동으로 명칭이 변경됨
- 인천차이나타운은 1990년대 후반 선린동 관광지화를 위해 붙인 명칭
- 2010년대 들어 인천차이나타운 영역이 확대됨, 현재는 동화마을 부근까지 확대

# 구 인천영사관 건물의 정문



# 1910년경의 청국조계 지도 (인천화교협회소장)



# 각 상점을 표기한 청국조계 지도 (인천화교협회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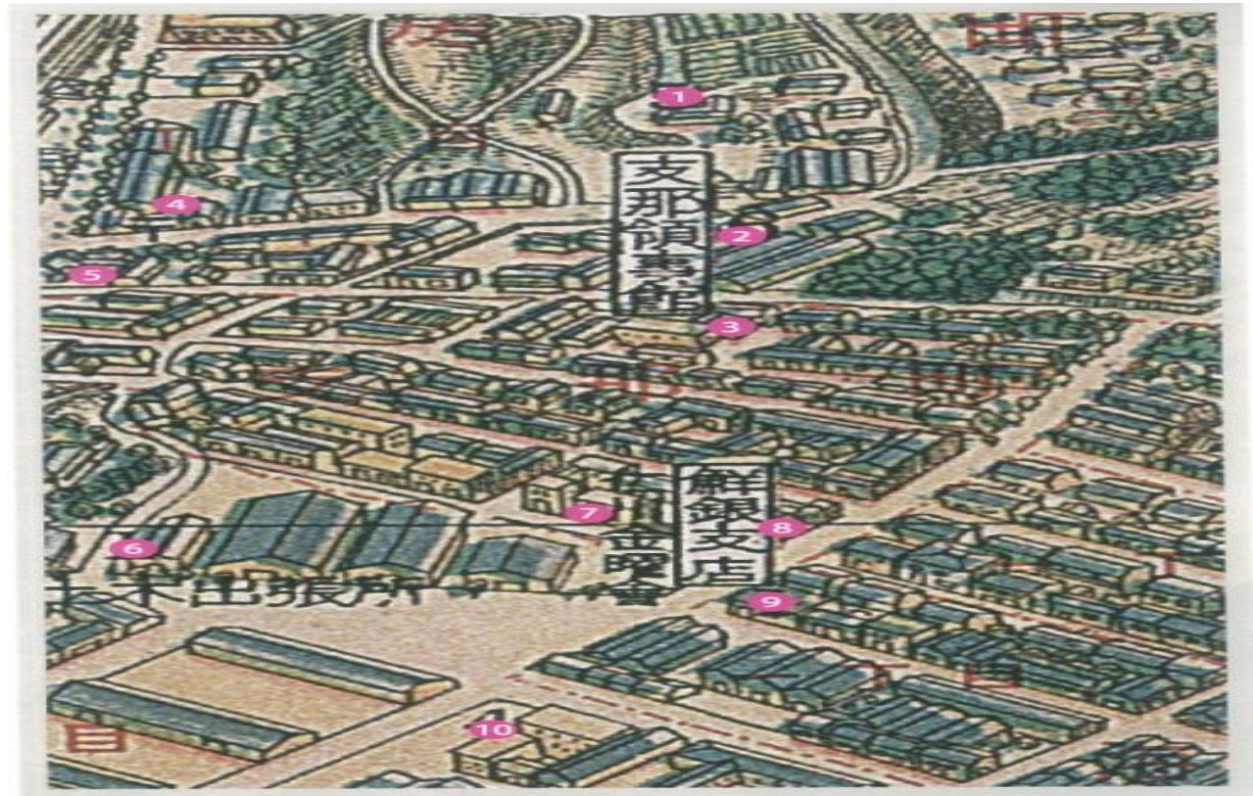
# 청국 조계 주변의 풍경(1930년대)

## 지나정(1930년대)

출처: <모던 인천 시리즈>

### 지나정 부근 풍경

- 1 나가오카상점
- 2 화상 왕성홍(王成鴻)의 동복공(同福公)
- 3 지나(중국)영사관
- 4 우편소(우체국)
- 5 파출소
- 6 산에이구미(三榮組)
- 7 인천금요회
- 8 조선은행 인천지점
- 9 인천송함석유조합
- 10 요코다 어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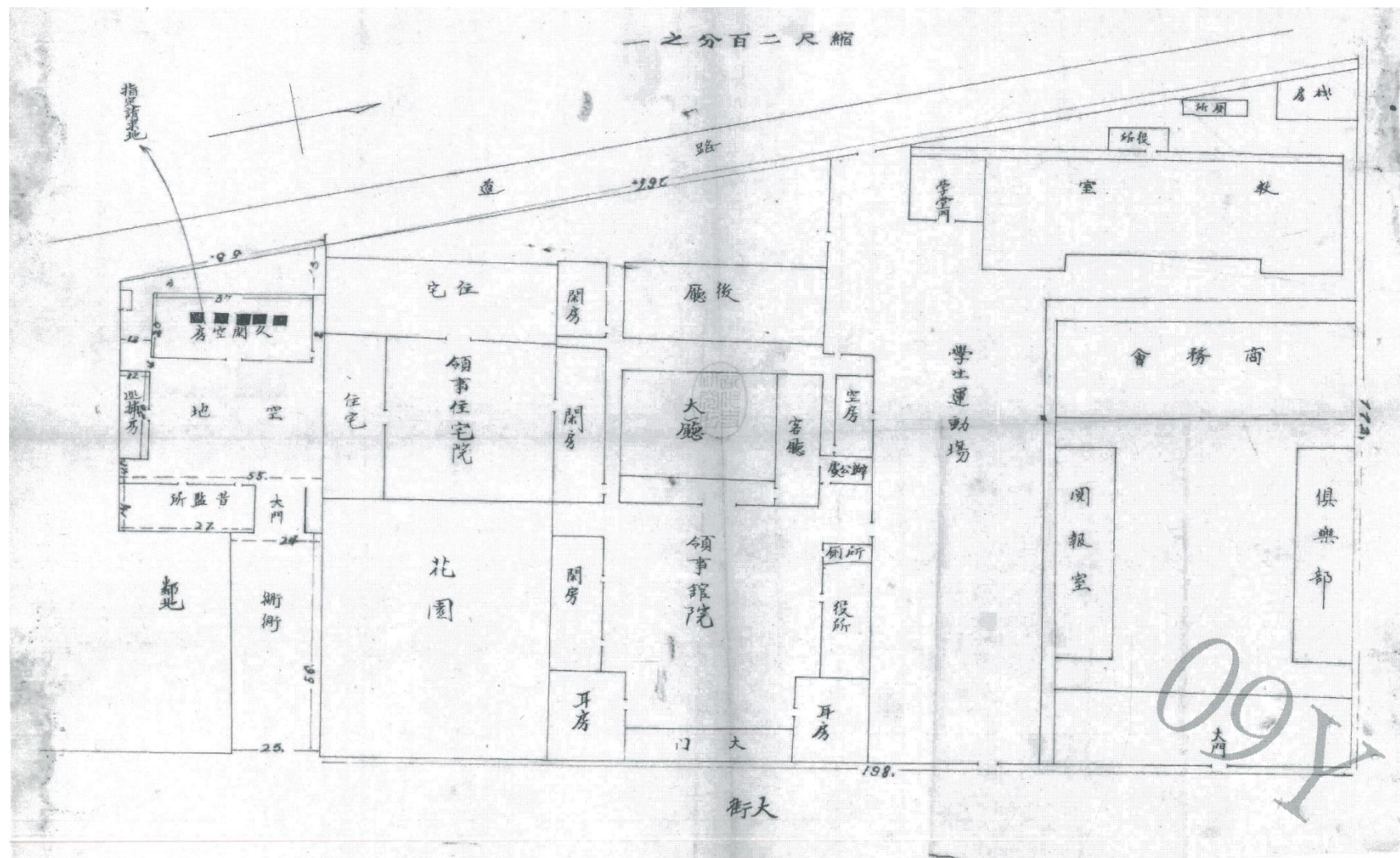


- 1 나가오카 상점 長岡商店
- 2 왕성홍/동복공 王成鴻/同福公
- 3 청국영사관 淸國領事館
- 4 우편소 郵便所
- 5 파출소 派出所

- 6 산에이구미 三榮組
- 7 인천금요회 仁川金曜會
- 8 조선은행 인천지점 朝鮮銀行
- 9 인천송함석유조합 仁川松函石油組合
- 10 요코다 어구점 横田船具店

# 인천영사관과 화교학교 위치도(1930)

대만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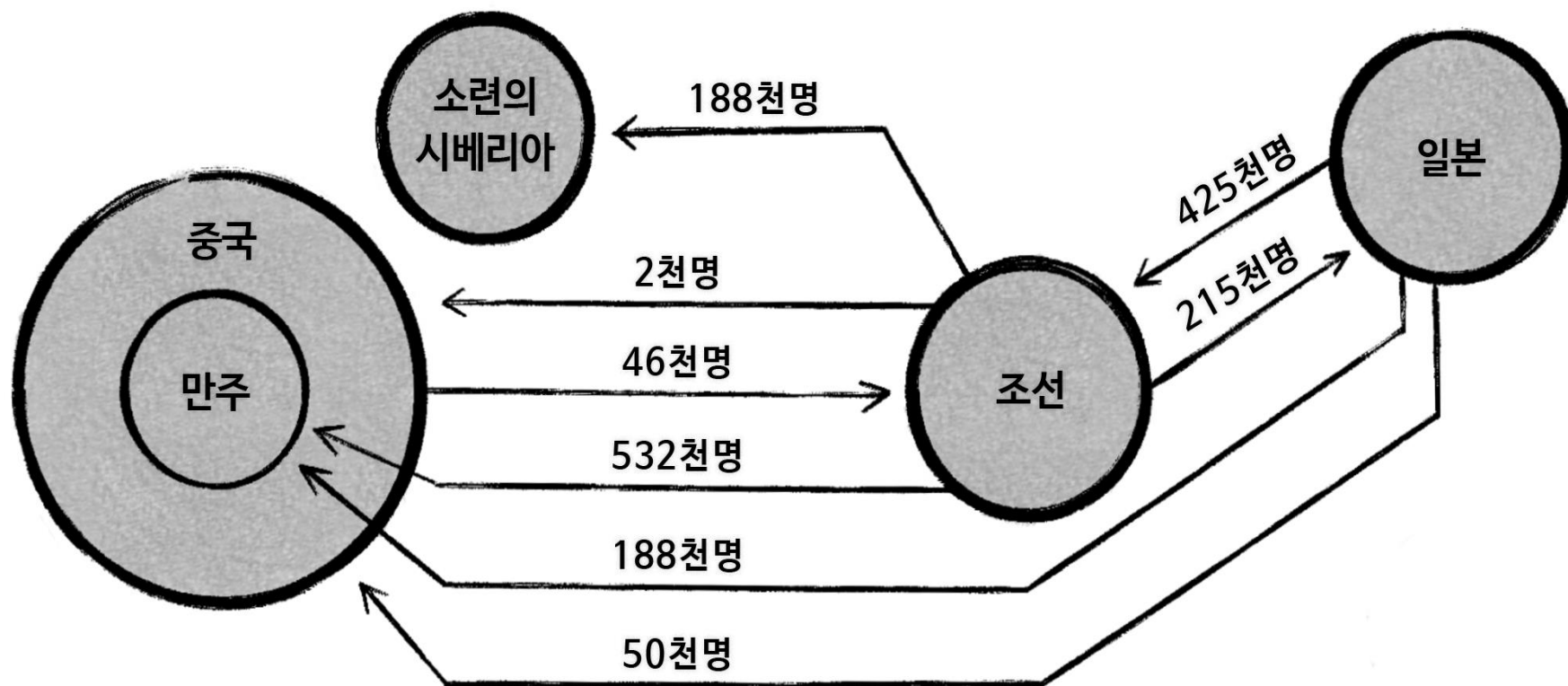
# 1920년대의 인천차이나타운 거리 (화도진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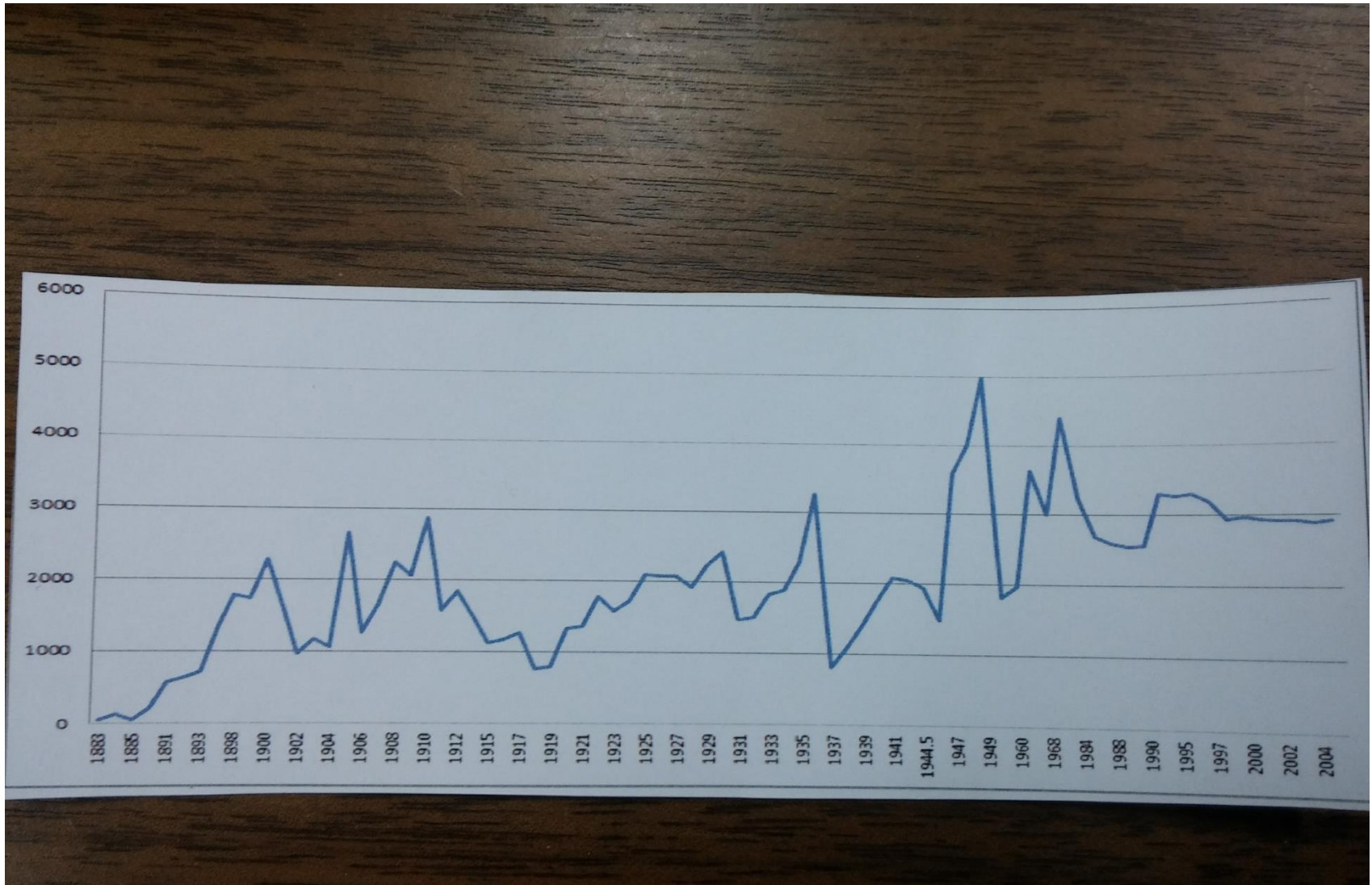
# 1962년의 인천차이나타운



# 1920년 중반 동북아시아 역내 인구가이동



# 인천화교의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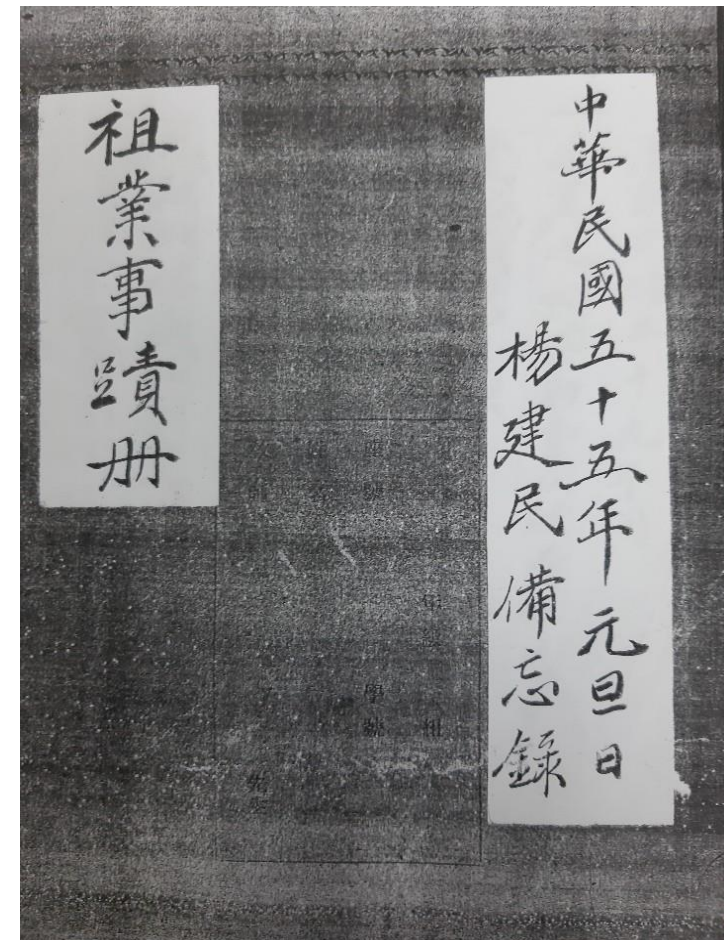


# 화취공의 역사를 기록한 楊建民의 <祖業事跡冊>(1966年)

## 자료 소개

- 양건민이 1966년 탈고한 자신의 가계의 역사 기록
- 원고용지(8×19)23장에 자필로 중국어로 기록
- 양건민이 아들 楊先讓에 전달한 후, 양선양이 漢城華僑協會顧問인 국백령 선생님 그리고 그 복사본을 제공받음

## 祖業事跡冊의 表紙



# 和聚公의 설립

## 설립의 경위

-설립자 楊翼之는 1869년 산둥성牟平縣 養馬島에서 出生

-楊翼之의 祖父인 楊汝祥은 정크선을 所有하면서 중국 華東과 華北의 港口를 往來하면서 商業流通業을 営위, 相當한 財産을 축적

-楊翼之는 1903년 同鄉의 資本을 모아 주단포목상점 裕盛棧을 개업

## 산둥성 양마도





# 1900년대초 인천차이나타운



# 仁川中國城의 綢緞布木商店

## 和聚公

-和聚公의 年間販賣額은 現在의 韓國 貨幣로 換算하면 400 億圓

-같은 場所에서 40年間 營業

-和聚公이 營業하던 善隣洞 6 番地는 현재의 仁川華僑協會 建物の 맞은편으로 현재는 多多福 中食饅頭식당 자리이다.

日本人이 1930年代 그린 仁川 中國城



# 和聚公의 發展

## 急速한 發展

- 裕盛棧은 주로 上海에서 織物類를 輸入하여 全國 各地에 販賣

- 1908년에는 裕盛棧을 發展的으로 解體하여 商號를 和聚公으로 變換

- 1910년대와 1920년대 好景氣와 卓越한 經營能力으로 朝鮮을 代表하는 綢緞布木商店으로 發展, 職員은 20-30名

## 1920-30년대 인천차이나타운



# 和聚公의 財産

## 不動産 및 株式

## 1943年の 和聚公 建物

-商店 建物は 垓地 96坪, 煉瓦組 2層 建物(現 市價로 약 10億圓)

-不動産 35坪의 2層 建物(現 市價로 8億圓)

-土地 5,066坪 保有

- 以外에 共和春 等の 株式 多數 保有



# 和聚公의 中國 本土 投資

## 哈爾濱에 和聚公油坊 設立

-1930年代 初 香坊 東號四街  
에 豆油製造의 和聚公油坊을  
設立

-楊翼之의 長子인 楊建民을 經  
營者로 派遣

-當時 哈爾濱은 大連 다음으로  
큰 豆油製造 生産基地

## 仁川山東同鄉會館(1930年)



# 瀋陽에 泰豐號 담배 代理店 設立

英美煙公司의 代理店

-楊翼之는 次男 楊子平을 통해 담배  
販賣商店에 投資

-楊子平은 煙台 所在 實益學館을 卒  
業 後, 瀋陽의 英美煙公司(British  
American Tobacco)에 入社

- 이 會社는 美國과 英國의 담배회사  
로 當時 中國의 담배시장에서 60-  
80%를 차지하는 獨占 地位

- 楊子平은 會社의 큰 信任을 얻어 담  
배 판매상점 대리점인 泰豐號를 設立

Carol Benedict著

『中国煙草史』表紙



# 楊子平의 抗日活動

## 抗日活動과 泰豐號의 閉店

-1929년 中國共產黨에 入黨하여 같은 당 奉天特委財務部長을 맡아 이 지역의 항일운동을 財政的으로 積極 支援

-1936年 6月 當局에 逮捕되어, 8月에 公開處刑을 당함

- 楊建民의 3男인 楊先讓의 努力으로, 1987年 8月 革命烈士로 追敍

- 2012年 7月 24日에는 그의 故鄉인 養馬島 東中原村에 革命烈士의 碑石 建立

## 子平의 사진(BAI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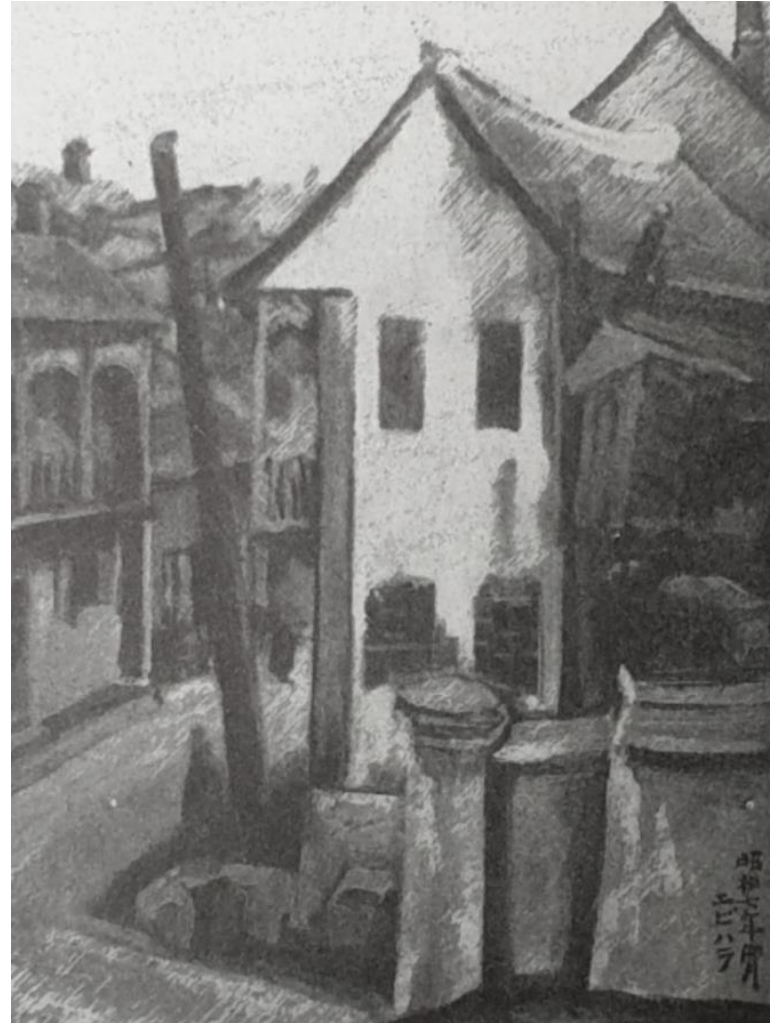


# 和聚公과 和聚公油坊의 閉店

日本人이 1930年代 그린  
仁川中國城

## 閉店の 經緯

- 楊翼之가 1943年 他界
- 和聚公의 職員이 抗日活動을 하다 警察에 逮捕
- 日本의 彈壓과 戰時統制經濟로 인해 40年 歷史의 和聚公 문을 닫음
- 哈爾濱의 和聚公油坊도 第2次 國共內戰으로 문을 닫음



# 畫家 楊先讓의 誕生

## 履 歷

- 1939年 養馬島에서 仁川으로 移住하여 仁川華僑小學을 卒業
- 卒業 後 서울의 光華中學(現在の 漢城華僑中學)에 入學
- 上級學校 進學을 위해 1944년 大陸으로 떠남
- 瀋陽의 國立東北中山中學에 入學하여 高等部를 다니다가 1948년 國立北平藝傳(현 中央美術學院의 前身)에 入學
- 그후 中央美術學院 民間美術系 主任教授를 歷任하고 中國美術家協會版畫藝術委員會 副主任
- 그의 딸 楊陽은 楊陽은 清華大 美術學院 教授를 歷任

## 楊先讓(BAIDU画報)



# 楊翼之 100여년만의 歸鄉

## 韓國華僑 歷史의 象徵

- 楊先讓은 60여년 만에 서울  
과 인천을 찾아 祖父 楊翼之의  
墓地를 찾음

- 2012年 4月 8日 養馬島 故鄉  
에 移葬

- 楊翼之 家計의 歷史는 韓國  
華僑 歷史를 象徵

- 아직도 그 歷史는 繼續되고  
있음

## 楊翼之 墓地 移葬 祭文 楊先讓 作成(2012.4.8.)

### 祭文

呜呼哀哉，岁月沧桑，时局动荡，追述先祖杨翼之（勵堂）  
爱国华侨一生事迹：

光绪 34 年（1886 年）杨翼之 19 岁赴朝鲜仁川经手从国内  
运输江浙一带绸缎、夏布批发业，创建“和聚昌”商号数十年。  
身在海外，深感国不强、民难安之现实，加入孙中山创建的“同  
盟会”，热心进行捐款反清活动。

在日寇侵华期间，其次子（中共奉天特委经济队）杨子平，  
1936 年不幸被日本宪兵队逮捕入狱，受尽酷刑，以“反满抗日，  
共产党罪”枪杀于奉天，财产侵占。1941 年堂侄杨从谔又以共  
产党罪被捕，死于朝鲜仁川狱中，从此仁川商号被抄关闭。

先祖杨翼之接二连三之遭遇，于 1942 年 12 月 20 日病逝于朝  
鲜仁川，葬于仁川万寿洞义地。

悠悠岁月 70 年已过，今获韩国对华侨墓地迁移通知，借此之  
际，幼孙杨先让携曾孙杨阳、杨海郎、魏述实夫妇、重曾外孙女  
王欣悦，赴仁川办理迁墓手续。并感谢挚友鞠柏嶺夫妇、孙冬、  
杨磊等协助陪伴，将先祖遗骨接回中国家乡山东牟平养马岛中原  
村归根安葬。

祝祷先祖杨翼之在天之灵与神同在。

2012 年 4 月 8 日拜书

楊先讓

# 인천 화상 덕흥호

## 부산 덕흥호의 설립

- 이 서간은 1907년 3월 12일 한성 덕흥호 직원인 鄭善□이 인천 덕흥호 직원인 정원휘, 정이겸에 보낸 업무상의 편지이다.
- 1883년 11월 6일 부산 일본전관조계(日本專管租界)에서 정익지(鄭翼之), 정위생(鄭渭生)에 의해 개설됨
- 정익지와 정위생은 모두 광둥성 상산(香山) 출신. 이들 두 명은 1868년 개항한 일본 고베로 이주
- 그들은 광둥 화상 공흥호(公興號)의 직원으로 일했음

## 편지 봉투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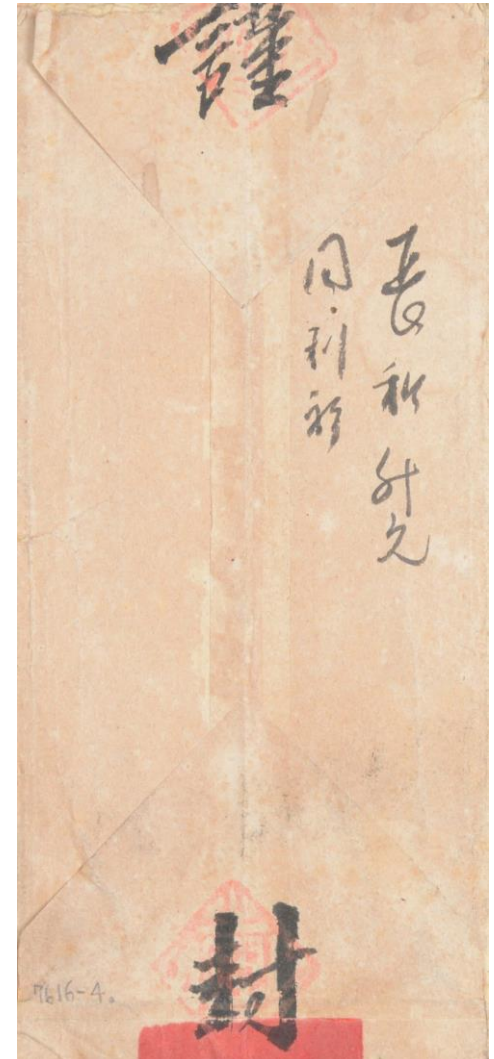


# 고베화상의 조선 진출

## 덕흥호는 고베화상에 의해 설립

편지 봉투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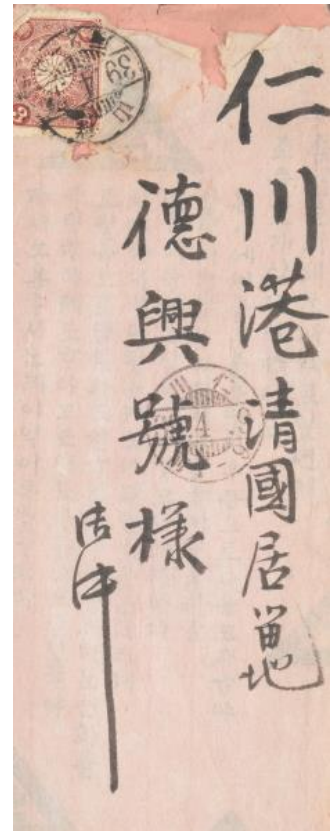
- 정익지와 정위생은 광둥 화상 이화호(怡和號)의 지배인 맥소팡(麥少彭) 등으로부터 약 2천원의 출자를 받아 부산에 덕흥호를 개업
- 맥소팡은 광둥성 삼수현(三水縣)에서 1863년 출생하여 1879년에 고베로 이주하여 이화호의 지배인, 고베중화회관의 이사로 활동
- 또 다른 출자자인 남만고(藍萬高)는 광둥성 상산현 출신으로 1870년 설립된 홍콩상하이은행 고베지점의 매판으로 활동했으며, 동시에 승기호의 지배인으로도 활동
- 그의 다른 이름은 남탁봉(藍卓峰)으로 이 서간에 '卓峰 兄'이 바로 그였음



# 인천 및 한성 덕흥호 설립

## 설립의 경위

- 정익지가 1884년 '인천구화상지계장정' 체결을 전후한 시기에 인천으로 이주
- 청국전관조계의 토지 정지 작업이 끝나 경매가 실시된 1884년 8월 4일 조계 내에 인천 덕흥호를 개설
- 정위생도 1885년 인천으로 옮겨 인천 덕흥호가 사실상의 본점이 되고, 부산 덕흥호는 문을 닫음
- 정익지와 정위생은 한성 종로에 1888년 7월 경 기와집 20칸을 매입하여 한성 덕흥호를 설립
- 한성 덕흥호는 1908년 광고 근처에서 서양잡화상점으로서 영업하고 있었으며 종업원은 10명으로 꽤 규모가 큰 상점이었음



# 인천 덕흥호의 경영 규모

- 1908년 당시 차지한 토지는 인천청국조계에 8필지, 92.6평
- 덕흥호는 인천청국전관조계 차지료 납부 총액의 5.4%를 차지, 화상 가운데 많은 토지를 보유
- 삼리채(三里寨) 청국전관조계(新界)에는 1908년에 63평을 차지
- 1913년 인천 덕흥호의 지배인은 정이초(鄭以初)로 인천중화상무총회의 초대 협리(協理, 부회장)로 활동했다. 당시의 나이는 35세였고, 광둥성 상산현(香山縣) 출신, 그리고 서양잡화상점 경영자로 기재되어 있다.



光輝牙 兩位 如晤

所台作景云山東信商市上之匯票已收照云云等付  
香港之匯票之項及匯票之項以共付日場之匯去神戶  
卓峰之轉手匯票收銀交於匯兌而生匯票之項並應  
匯兌之給付並其付銀之計之之數付於匯兌付於匯兌付於  
撥由此次一商戶去卓峰之匯票為匯兌之匯票之匯兌之  
派云之想已施行矣與同船開往卓峰之匯票信並匯兌之信  
宜早寫備而由郵局妥予神戶丁也但匯兌之信亦新寫便另  
由郵局直寄香港轉匯兌云由神匯付匯兌轉交昨日查收云  
云該匯票皆辦理了用輝之船十五號行之匯兌匯市  
直匯銀行辦理非山東幫增盛和光匯兌并今匯兌等備付元  
已在增盛和匯得中江票一紙收銀票訂明丁係是票十天期寫  
示收銀概收如船開輝仰即得票去收銀概收文開在付  
亦與兵和司利祥之項約略多少計治嘴收銀概收日轉  
亦以照常辦理了也並付上辦單一特仰軍需中江探東前  
單之貨一併抄寄去丁丁前次付公道匯之票一特抄附  
亦係寫示收銀概收此票以一齊寄去郵遞由下輪分開寄之  
計郵度任便匯票只請核結事之項有欠若干見概施行  
丁也這船香港中江可事之貨從前起妥也此搭山東  
蓬船入宜分先收裝入而報物係價重之貨則搭大船  
妥當之山東船法則穩固而要令抄上貨單可取諸貨  
起妥之時無分分別此者之乃盼并附上增盛和之票新  
此件行先祈照注匯店事項了也此清

台照 並依

日安

社區收中機

無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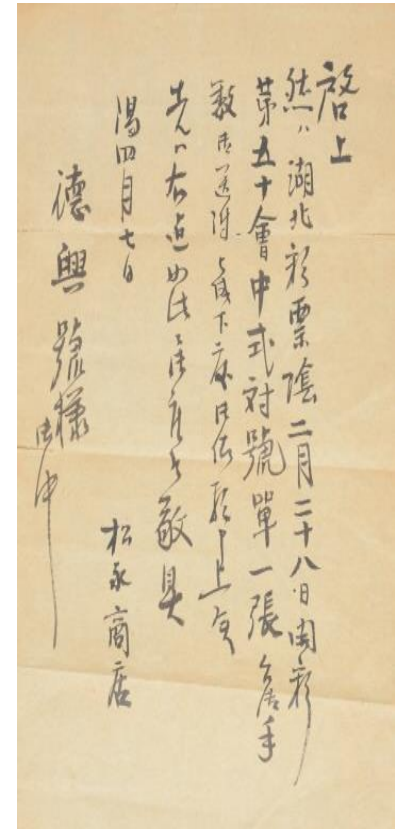
黃十二月初

查此次所事之白收信抄一及重收可發收便收此信  
抄在匯上天平為秤過官重抄明照原單可注意短少位  
什數少之多照算要減少以之計治嘴改正急仰存仰吃虧  
務請公允丁也查收概前便與今來單注中元日增盛和打  
之多何不改正仰照前途辦理了

# 주요한 취급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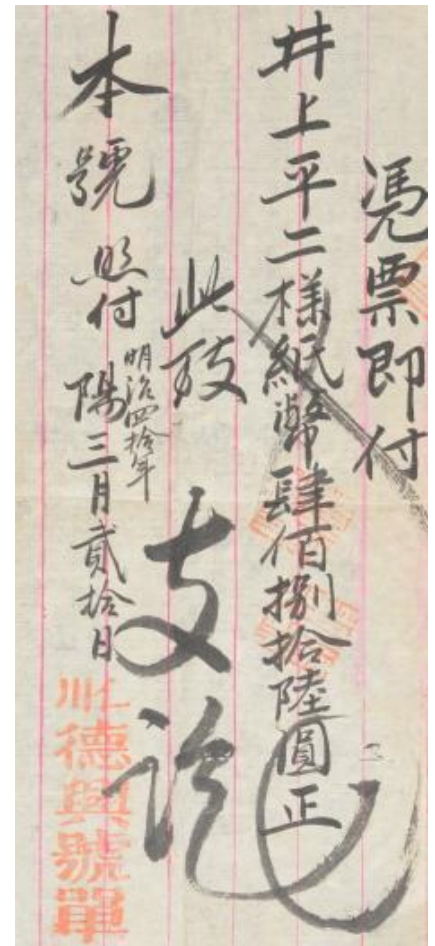
## 비단과 복권

- 이 서간서 확인되는 덕흥호의 취급 물품은 중국 산 비단
- 다른 서간에 인천 덕흥호가 채표(彩票, 복권)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 군산항 소재의 일본인 이노우에 헤지(井上平二)가 경영하는 마쓰나가상점(松永商店)이 1907년 4월 7일 인천 덕흥호에 채표를 주문한 편지
- “호북 채표 음력 2월 28일 추첨하는 제50회 번 호맞추기종이(채표) 1장을 수고스럽지만 송부해 주시기를 의뢰드립니다.”(湖北彩票陰二月二十八日開彩第五十會中式對號單一張合御手數御送附被成下度御依頼申上候)



# 덕흥호의 상업네트워크

- 홍콩 소재의 생원룡(生源隆), 정위생, 조룡(兆隆), 승원원(升元元), 일홍(逸洪), 이양(李洋) 등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
- 산둥성 엔타이 소재의 거래처는 열생잔(悅生棧), 영안흥(永安興), 동리상(同利祥), 신강채동(申江採東) 등이었다.
- 일본 고베의 거래처는 남탁봉이었다.
- 한성 덕흥호는 홍콩 소재 거래처에 상품 대금을 지불하려 했는데, 지불 방법은 고베의 남탁봉을 통해 이뤄졌다.
- 1907년 당시 조선 화상과 상하이 및 홍콩 소재 화상 간의 거래는 홍콩상하이은행 고베지점 혹은 요코하마지점을 경유하여 송금



# 중국산 비단 수입 루트

-덕흥호는 주로 홍콩과 상하이에서 물품을 수입

-당시 홍콩-인천, 상하이-인천 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조선 화상은 홍콩, 상하이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산둥성 옌타이를 경유

-이 서간은 옌타이에 도착한 화물을 환적할 때 상품의 가격에 따라 선적할 선박의 종류를 명시

-저가의 상품은 산둥 봉선(篷船)에 적당히 쑤셔넣어 선적하라고 함

-고가의 상품은 크고 적당한 산둥선(山東船)에 선적하여 안전을 기하도록 함

-이러한 환적의 업무를 의뢰한 대상은 서간의 내용으로 짐작할 때 열생잔(悅生棧)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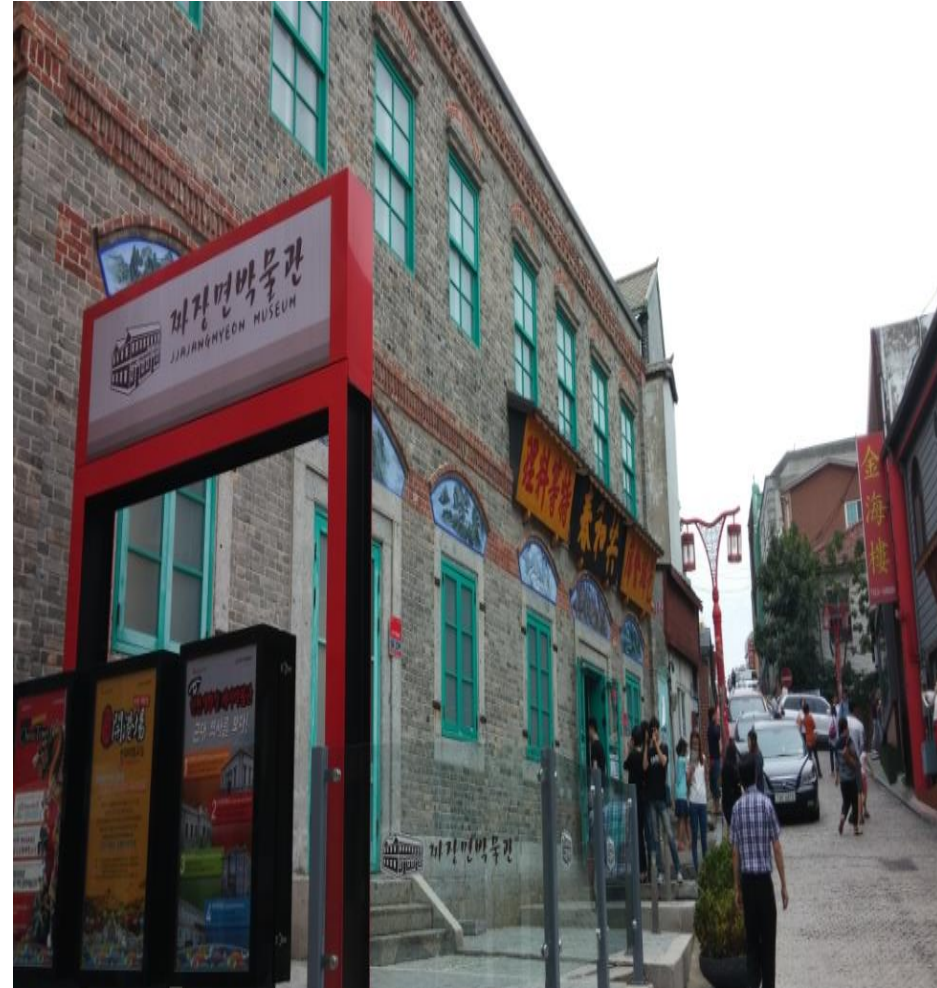
-환적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하면 인천 덕흥호에서 분별하여 포장을 함

# 인천화교의 중화요리점

## 한국 중화요리의 뿌리, 인천

- 1 1880년대 말 광동 화상 이태(怡泰)의 스튜어트호텔 개업
- 2 1906년 인천의 중화요리점은 연남루(燕南樓), 동흥루(東興樓), 합흥관(合興館), 사합관(四合館), 동해루(東海樓), 흥릉관(興隆館) 등 6개. 1908년은 8개, 종사인원은 남자 25명, 여자 1명
- 3 1930년 고급 중화요리점 및 중화요리음식점은 21개소, 호떡집은 33개소, 요리는 90명. 고급 중화요리점은 8개로 중화루 연간매상액은 3만원, 동흥루(同興樓) 2만원, 공동춘(共同春, 지나정) 9천원, 의생성(義生盛, 지나정) 5천원.
- 4 1942년 중화요리점은 60호 인천화교 전체 호수의 19%를 차지, 종사인원(가족 포함)은 388명으로 전체의 21%. 가장 큰 고급 중화요리점은 중화루(中華樓)로 종업원이 25명, 송죽루(松竹樓)는 22명. 공화춘(共和春)은 종업원이 14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빈해루의 종업원은 12명이었다.
- 5 공화춘은 인천의 고급 중화요리점 가운데 최대의 규모는 아니었음. 최초로 짜장면을 판매한 중화요리점인지는 분명하지 않음.
- 6 중화요리점의 주요한 메뉴는 우동, 잡채, 탕수육, 양장피. 짜장면은 대중적인 메뉴는 아니었음. 1930년의 가격은 양장피 80전, 탕수육 55전, 잡채 40전, 우동 30전. 당시 호떡의 가격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1개당 약 5전으로 우동의 6분의 1 수준

## 공화춘(현 짜장면박물관)



# 중화루의 역사

## 인천 최대의 중화요리점

- 중화루의 설립은 1915년
- 소재지는 본정(本町, 일본어 발음으로는 혼마치, 현재의 중앙동)1정목(丁目) 18번지의 구 대불호텔 건물
- 1922년 구 대불호텔에서 확장 개업
- 중화루의 경영자는 1935년 뇌문조(賴文藻), 1942년은 뇌성구(賴盛久)
- 해방 후인 1948년 경영자는 서덕유(徐惠有)로 바뀜
- 공화춘 경영자인 우희광, 중화루 경영자인 뇌문조는 모두 산동성 복산현(福山縣) 출신
- 복산현은 산동요리의 고향, 수타면도 이곳에서 탄생.

## 구 대불호텔 건물은 최고가

- 1935년 중화루의 자본금은 1만6,000원, 공화춘의 자본금은 5,000원
- 1942년 중화루의 종업원은 25명, 공화춘의 종업원은 14명, 동흥루에서 바뀐 송죽루(松竹樓)의 종업원은 22명.
- 구 대불호텔 건물은 1935년 현재 66평의 대지에 3층 건물로 54칸의 방을 두고 있었다. 1935년 당시 부동산 가격은 3만 3,000원으로 화교 소유 부동산 가운데서는 최고액.
- 영업 부진으로 1970년 초 문을 닫음.
- 이 건물은 1978년 남구 주안동 거주 한국인 현득수가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1,400여 만원에 매입, 건물 철거 후 내부의 유물 일부는 인천시립박물관에 기증.
- 2018년 4월 6일 대불호텔을 복원하여 중구 생활사전시관을 개관

# 중화루의 건물

중화루의 간판(해방직후)



중화루의 간판(1960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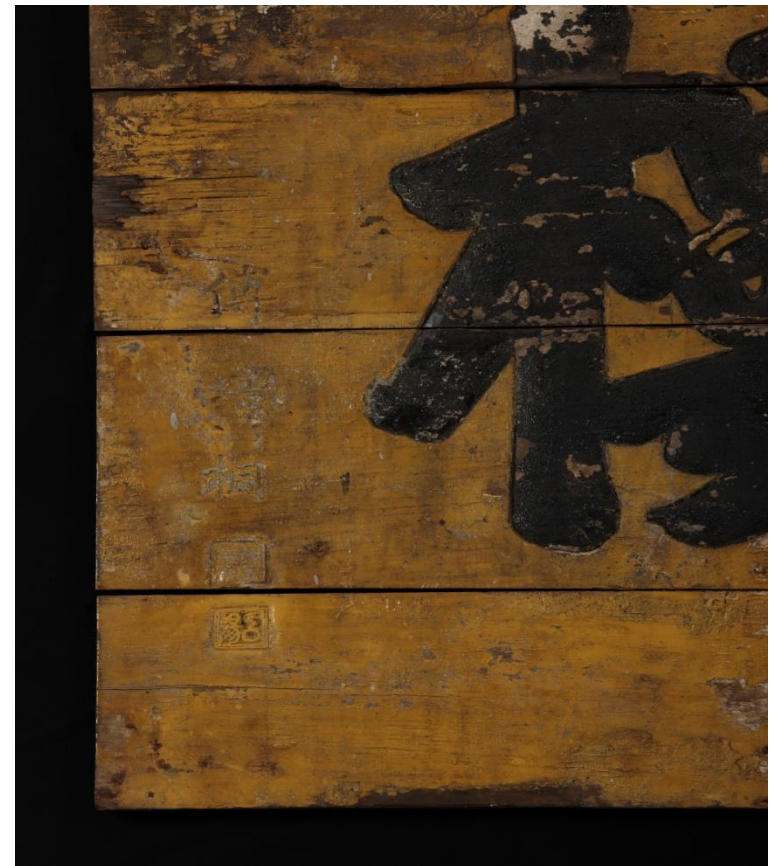


# 중화루의 간판

(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인천화교傅培桐(부배동)제작

1922년 음력 2월 제작 간판



# 중화루의 삼각 간판(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中은 중화요리 혹은 중화민국

新은 1948년 뇌씨 일가에서 徐憲有로  
경영자가 바뀐 것을 의미



# 중화루의 편액(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春光和靄 (춘광화애)

1922년 음력 2월 부배동 제작



# 중화루의 편액(인천시립박물관 제공 사진)

把酒臨風(파주임풍)

1922년 음력 2월 育黎 王□  
曹 제작



# 파주임풍 간판 전시회

인천시립박물관 전시장

간판 복제판



# 참고문헌

## 주요한 참고 문헌

- 이정희, 「근대 조선화상 화취공의 경영활동-『조업사적책』을 근거로-」, 『동양사학연구』제 152집, 2020.9, pp.507-544
- 이정희, 『한반도 화교사: 근대의 초석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경제사』, 동아시아, p.760
- 이정희, 『화교가 없는 나라: 경계 밖에 선 한반도화교 137년의 기록』, 동아시아, p.239
- 李正熙, 「韓國華僑社會組織研究」, 『近30年來東亞華人社團的新變化』, 廈門大學出版社, 2010, pp.313-338)

## 주요한 참고 문헌

- 이정희 송승석 송우창 정은주, 『한반도화교사전』, 인터북스, 2019
- 이정희 공편, 「인천차이나타운 우리 안에 품다!」, 『인천, 대륙의 문화를 탐하다』, 학고방, 2015, pp.221-358
- 이정희 송승석,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 학고방, 2015
- 李正熙, 「近代朝鮮における清國專管租界と朝鮮華僑」, 『東アジアにおける租界研究』, 東方書店, 2020, pp.353-383